

5. 고분시대

전남 동부지역에서 지금까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고분에 대해서 발굴조사된 예는 주암면 요곡리 토광묘가 유일하다. 이외에는 고흥 도화면 봉용리·신호리·당오리 등지에서 파괴된 석실분이 발견된 예가 있다.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유물로 보아 고분으로 추측되는 것이 곡성 석곡면 하송리, 보성 별교읍 마동리,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와 황전면 회룡리 그리고 별량면 쌍림리, 여천 화양면 이목리, 곡성 곽면 마전리와 산정리, 보성 미력면 용정리 등지에 있다.

이 중에서 곡성 석곡면 하송리에서는 금귀걸이 1점, 금동귀걸이 1쌍, 굵은옥 1점, 금팔찌 2점, 철검 2점, 철창 1점, 송곳창 2점, 방추차 4점, 귀달린단지 1점, 굽달린단지 1점, 긴목단지 2점, 토기병 2점, 자리병 1점, 항아리 2점, 뚜껑접시 2점, 굽다리접시 1점 등 27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성격상 영산강 유역의 웅관묘나 백제 석실분과는 이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 가야나 신라계의 고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황전면 죽내리에서는 가야계 석곽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남 동부지역이 백제 또는 영산강 유역의 웅관묘 집단과 가야의 경계지역에 속하고 있지만 아직 영산강 유역에서 전용 웅관이 발견된 바 없고, 확실한 백제 고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가야계 문화의 영향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토기 중에서는 영산강 유역 웅관묘 출토 토기나 석실분 출토 토기들과는 형태상 같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질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또 가야나 통일신라와는 형태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토기 요소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이 고분시대 문화의 접이지대라 하겠다.